*영어어문교육, 15*권 **1**호 **2009**년 봄

다어동사에 대한 고찰: 구동사를 중심으로

현완송
(Cheju National University)

Hyun, Wan Song. (2009). A study on multi-word verbs: Centering on phrasal verb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1), 391-40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two main multi-word verbs, that is, phrasal verbs and prepositional verbs. Multi-word verbs consist of a lexical verb plus a particle. In phrasal verbs, the particle is an adverb and in prepositional verbs it is a preposition. Phrasal verbs resemble prepositional verbs superficially, but there are syntactic and phon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m. For example, the particle of a prepositional verb must precede the object, while the particle of a phrasal verb can either precede or follow the object. However, when the object is a pronoun, the pronoun follows the preposition (unless the particle is stranded) but precedes the particle of a phrasal verb. And the particle of a phrasal verb is normally stressed, whereas the particle of a prepositional verb is normally unstressed. This study also looks into the movement of the particle of a phrasal verb in the syntactic perspective, as well as in the pragmatic perspective. Givenness of information, that is, whether some information is old or new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entence structures. The degree of communicative dynamism of information can also influence the sentence structures.

[phrasal verbs/prepositional verbs/particle movement, 구동사/전치사적 동사/불변화사 이동]

Ⅰ. 서론

"영어교육의 초점이 그 동안 구조나 문법에 비해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어휘에 관한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김낙복, 2007, p. 158)". 또한 어휘 학습과 관련하여 영어의 'call on', 'look after'와 같은 표현은 목적어가 대명사여도 'called on him', 'looked after her'와 같이 전치사의 이동 없이 사용되는 것에 이끌리어서 'pick up', 'put on' 등의 표현도 'picked up her', 'put on it'같이 비문법적으로 사용해 본 경험을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어동사 어휘에 대한 이해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다어동사(multi-word verbs)는 다어어휘단위(multi-word lexical units)에 속하는 개념인데, 다어어휘단위는 단 하나의 단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들의 연쇄로서 이 연쇄는 어휘화(lexicalized)되어 있다(Biber, Johansson, Leech, Conrad & Finegan, 1999, p. 58). 즉, 'look into'나 'sort of'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Biber, Johansson, Leech, Conrad와 Finegan(1999)은 다어어휘단위는 그 구성요소로부터 전체 의미를 유추할 수 없는 관용어로서 어떤 구성요소도 다른 단어로 대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 결합어(free combinations)와 구별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다어어휘단위로 다어동사인 구동사(phrasal verbs)와 전치사적 동사(prepositional verbs)를 들고 있다(p. 59). 그러나 구동사는 항상 이어동사(two-word verbs)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어동사란 용어는 전치사적 동사도 포함하기 위한 용어이다.

한편, Greenbaum(1996)에 의하면, 다어동사는 어떤 동사에 하나 이상의 불변화사(particles)가 결합하여 관용어가 됨으로써 그 구성소로부터 전체의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없는 어휘 항목이다(pp. 279-289). Greenbaum은 불변화사가 결합되어 있는 다어동사를 다음과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Greenbaum, 1996, p. 280).

(1) a. intransitive phrasal verbs, 예, *give in* (surrender)
b. transitive phrasal verbs, 예, *find* (something) *out* (discover)
c. monotransitive prepositional verbs, 예, *look after* (take care of)
d. doubly transitive prepositional verbs, 예, *blame* (something) *on*
e. copular prepositional verbs, 예, *serve as*
f. monotransitive phrasal-prepositional verbs, 예, *look up to* (respect)
g. doubly transitive phrasal-prepositional verbs, 예, *put* (something) *down to* (attribute to)

이 연구는 위의 분류 중에서 Biber 등 5인 (1999)이 지적한 것처럼 다어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또한 외형적으로 유사하게 보임으로써, 영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1b)의 타동사적 구동사(이하 '구동사')와 (1c)의 전치사적 타동사(이하 '전치사적 동사')에 초점을 맞춰 이 둘의 특징 및 차이점을 고찰하고 이어서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과 관련하여 통사론적, 화용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화용론적 논의에는 수형도, 문장의 중의성, 분열문, 어순도치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화용론적 논의에는 어순, 기지성, 제보력 등급 등의 개념이 사용된다.

Ⅱ. 구동사와 전치사적 동사의 특징

구동사는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불변화사로 이루어진 어휘항목인데, 이때의 불변화사는 부사(adverbs)다(Greenbaum, 1996, p. 280). 구동사 구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a. We will *set up* a new unit.
b. Shall I *put away* the dishes?
c. *Find out* if they are coming.
d. She's *bringing up* two children.
e. Someone *turned on* the light.
f. They have *called off* the strike.
g. He can't *live down* his past.
h. I can't *make out* what he means.
i. We *pushed home* our advantage.
j. She *looked up* her friend.
k. I've *handed in* my resignation.
l. They may have *blown up* the bridge.
(Greenbaum & Quirk, 1990, p. 337)

한편, 전치사적 동사도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불변화사로 이루어진 어휘항목인데, 이 때의 불변화사는 전치사가 된다. 전치사적 동사 구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a. *Look at* these pictures.
b. I don't *care for* Jane's parties.
c. We must *go into* the problem.
d. Can you *cope with* the work?
e. I *approve of* their action.
f. His eyes *lighted upon* the jewel.
(Greenbaum & Quirk, 1990, p. 338)

한편, 전치사적 동사와 자유 결합어(free combinations)는 다음 (3)에서 보듯이 표면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3) a. We *called on* the dean. (전치사적 동사)
b. We *called after* lunch. (자유 결합어)

그러나 (3a)와 (3b)는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Greenbaum & Quirk, 1990, p. 339-340). 첫째, 아래 (4)에서 보듯이 전치사적 동사 구문은 수동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자유 결합어 구문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4) a. The dean was called on.
b. * Lunch was called after.

둘째, 아래 (5)와 (6)에 나타나 있듯이, 의문문으로의 전환에서, 전치사적 동사구문은 의문대명사를 필요로 하고, 자유 결합어는 의문부사와 결합이 된다는 점이다.

(5) a. John called on her. --- *Whom* did John call on?
b. John looked for it. --- *What* did John look for?

(6) a. John called from the office. --- *Where* did John call from?
b. John called after lunch. --- *When* did John call?

이처럼 전치사적 동사와 자유 결합어가 외형상 유사하지만 통사구조가 다른 것처럼, 구동사도 자유 결합어와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나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음 문장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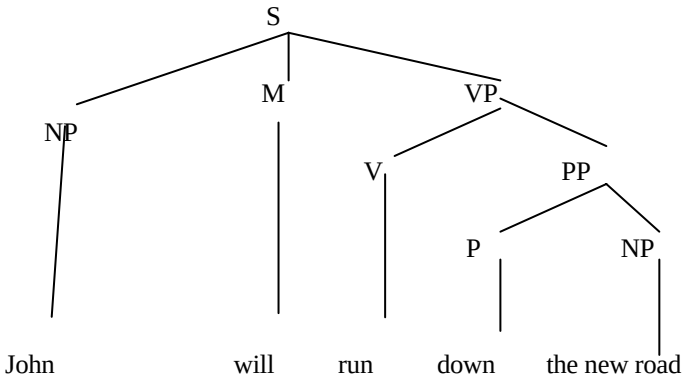
(7) John will run down the new road.

문장 (7)은 중의적인(ambiguous) 문장으로 상황에 따라 다음 (8)에서처럼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8) a. John will run down the new road.
(죤은 그 새 길을 따라 뛰어갈 것이다)
b. John will run down the new road.
(죤은 그 새 길에 대해 비난할 것이다)
(Radford, 1988, p.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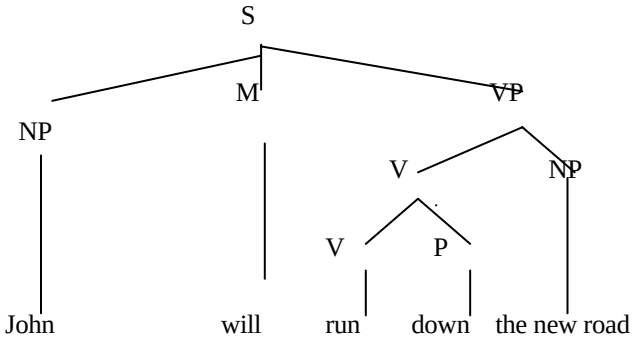
(8a)와 (8b)는 표면구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괄호 속에 있는 의미처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을 뜻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8a)는 자유 결합어 동사구문으로 해석되고, (8b)는 구동사 구문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Radford(1988)방식에 따라 (8a)와 (8b)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pp. 90-91).

(9)



(8a)의 *down*은 (9)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8b)의 *down*은 아래 수형도 (10)에서 보는 것처럼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1].

(10)



(9)와 (10)에서 보듯이 (8a)와 (8b)의 두 문장은 표면구조에서는 동일하지만, 통사적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8a)에서 *down the new road*는 하나의 구성소(constituent)를 이루지만, (8b)에서 *down the new road*는 구성소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down*은 *run*과 연결되어 *run down*이라는 구성소를 형성하고 있다[2].

분열문이나 어순도치도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하여, (8a)의 경우 분열문이나 어순도치는 보통 (11)에서처럼 나타나고, (8b)는 이런 현상이 (12a)와 (12b)에서처럼만 나타날 수 있음으로써 (8a)와 (8b)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1] Radford(1988)는 이 *down*을 전치사(P)로 나타내고 있으나(p. 91), 부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2] (10)에서 *down*은 이동하여 *the new road*의 뒤로 갈 수 있지만 수형도상의 설명은 생략함.

(11) a. It is *down the new road* that John will run.
b. *Down the new road* John will run.
c. It is the new road that John will run down.
d. The new road John will run down.

(12) a. It is *the new road* that John will run down.
b. *The new road* John will run down.
*c. It is down the new road that John will run .
*d. Down the new road John will run.

Ⅲ. 구동사와 전치사적 동사의 차이

전치사적 동사와 구동사는 표면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통사적 양상을 보여 준다. Biber 등 5인(1999), Greenbaum과 Quirk(1990), Greenbaum(1996), Quirk 등 4인(1985), Brinton(2000), Greenbaum과 Nelson(2002), Swan(2005)을 종합하여 전치사적 동사와 구동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치사적 동사의 불변화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선행해야 하나, 구동사의 불변화사는 목적어의 앞과 뒤 모두에 올 수 있다.

전치사적 동사구문	구동사 구문
(1) a. She *called on* her friends.	(2) a. She *called up* her friends.
b. ∗ She *called* her friends *on*.	b. She *called* her friends *up*.
c. She *came by* a fortune.	c. She *turned on* the light.
d. ∗ She *came* a fortune *by*.	d. She *turned* the light *on*.

2)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전치사적 동사의 불변화사는 목적어의 앞에 위치하나 구동사의 불변화사는 목적어의 뒤에 위치해야 한다[3].

[3] 대명사는 선행어인 명사가 나오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옛 정보이다. 즉 제4장에서 언급하게 될 Gundel 등(1993)이 주장한 기지성 계층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문장의 끝부분에 나타나지 않는다.

전치사적 동사 구문 구동사 구문

(3) a. She *called on* them. 4) a. She *called* them *up*.
b. * She called them on. b. * She *called up* them.
c. *He looked at* it. c. He *picked* her *up*.
d. *He *looked* it *at*. d. *He *picked up* her.

3) 전치사적 동사에서는 동사와 불변화사 사이에 부사가 삽입될 수 있으나, 구동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전치사적 동사 구문
(5) a. She called *angrily* on her friends.
b. He looked *curiously* at the pictures.

구동사 구문
(6) a. * She called *angrily* up her friends.
b. * He looked *curiously* up the pictures.

4) 구동사의 불변화사와는 다르게, 전치사적 동사의 불변화사는 관계대명사나 의문대명사 앞에 올 수 있다.

전치사적 동사 구문
(7) a. They are the friends *on whom* she called.
b. *On which* friends did she call?

구동사 구문
(8) a. *They are the friends *up whom* she called.
b. * *Up which* friends did she call?

5) 강세는 일반적으로 전치사적 동사에서는 동사에, 구동사에서는 불변화사에 온다.

(9) a. He CALLED on the dean.
b. She switched ON the light.

한편, 강세는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수동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0) a. The dean was CALLED on.
b. The light was switched ON.

이러한 강세의 차이는 다음 문장에서처럼 관계절이나 의문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1) a. the fortune that he CAME by
b. the fortune that he put BY
c. Which man did they CALL on?
d. Which man did they call UP?

이처럼 문장의 마지막 위치에 올 경우 구동사의 불변화사는 핵음조(nuclear tone)을 지니고, 전치사적 동사의 불변화사는 핵음조의 꼬리(tail of the nuclear tone)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세검증(stress test)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제4장의 (6)에서 보듯이 전치사적 동사의 불변화사도 across, over, without 등 다음절어인 경우에는 강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4장의 (7)에서 보듯이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같은 요소는 강세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Quirk 등 4인, 1985, p. 1157).

(12) a. I could have done withOUT the PREsent.
b. She will never get Over it.

(13) a. That's a present I could have done withOUT.
b. It is a loss that she will never get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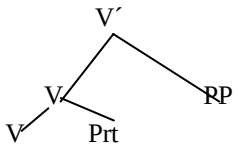
Ⅳ. 구동사와 관련된 논의

Brinton(2000)은 구동사와 전치사적 동사의 예문을 (1)에서 제시하고, 두 동사의 차이를 (2)와 (3)의 수형도로 나타내고 있다(p.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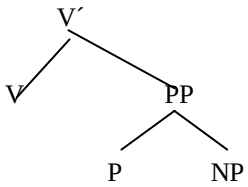
(1) 구동사: He *slipped on* the jacket.
He *slipped* the jacket *on*.

전치사적 동사: He *slipped on* a banana peel.
* He *slipped* a banana peel *on*.

(2) 구동사의 수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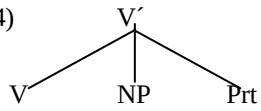


(3) 전치사적 동사의 수형도



Brinton(2000)은 이어서 구동사의 불변화사가 목적어 뒤에 오는 수형도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p. 19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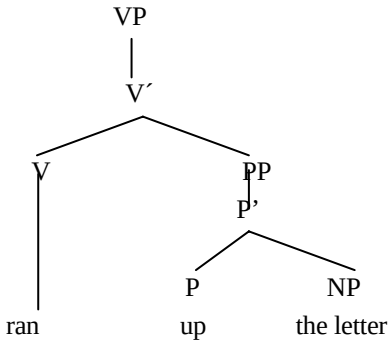
Brinton(2000)은 (2)에서 계층을 이루던 구조가 (4)에서는 구성소들이 모두 자매(sisters)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Haegeman과 Guéron(1999)은 전치사적 동사 구문과 구동사 구문을 (5)에서 비교하면서 각각의 구문에 대한 도출을 아래의 (6)과 (7)처럼 제시하고 있다(pp. 249-265).

(5) a. John *ran up* the street.
b. John *tore up* the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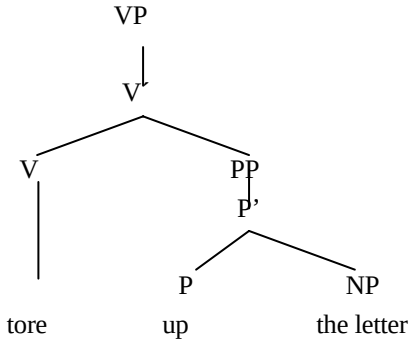
Haegeman과 Guéron(1999)은 Radford(1988)나 Brinton(2000)과 마찬가지로 (5a)의 수형도를 아래 (6)으로 나타냄으로써 ‘up the street’가 하나의 구성소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p. 250).

(6)



그러나 Haegeman과 Guéron(1999)은 (5b)도 외형상 (5a)와 유사함으로 (5b)의 수형도를 (7)에서 보듯이 위의 (6)처럼 나타내기 쉬우나, 그 경우 나타날 모순들을 보임으로써 (5b)의 구조는 (5a)와 다름을 입증하고 있다(pp. 252-253).

(7)



Haegeman과 Guéron(1999)은 수형도 (7)을 (5b)의 구조로 할 경우 ‘up the letter’가 구성소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구성소가 되지 못함을 아래 (8)의 예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8) a. * [*Up which letter*] Jone tore?
b. * [*Up this letter*] John tore.
c. * It was [*up the letter*] that John tore.

한편 Haegeman과 Guéron(1999)은 예문 (9)를 제시하여 구동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p. 253).

(9) John *tore up* the letter and Bill---- the card.

예문 (9)는 ‘Bill’과 ‘the card’사이에 공백화현상(gapping)을 허용하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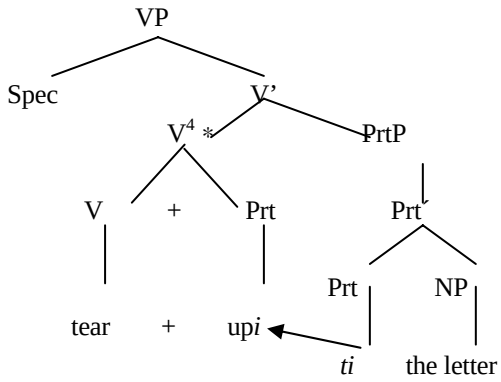
현상은 ‘up the letter’는 구성소가 되지 못하고, ‘tore’와 ‘up’이 구성소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10)에서 보듯이 ‘tear up’은 ‘up’대신 다른 단어를 삽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

(10) John tore up the letter.
*down

Haegeman과 Guéron(1999)은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구동사 구문의 도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p. 265).

(11) a. John *tore up* the letter.
b. John *tore* the letter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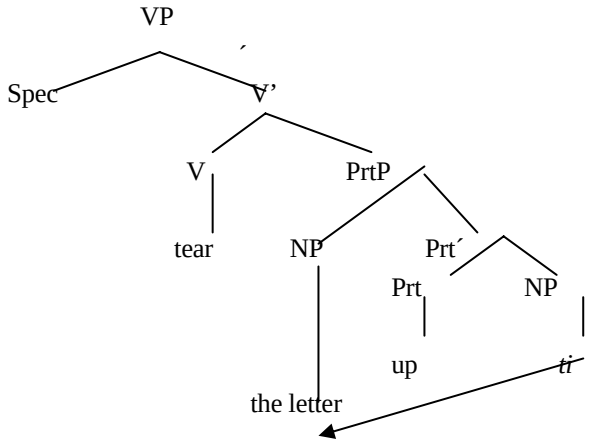
(12)



즉, Haegeman과 Guéron(1999)은 (11a)의 구조를 (12)처럼 나타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구동사 구문에서는 불변화사구(PrtP)가 상정되어 불변화사가 하나의 핵(head)을 이룬다. 이 핵은 불변화사구에서 생성되어 구동사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 (13)을 보기로 하자.

[4] V는 ‘verb + particle (Prt)’를 나타냄

(13)



(13)은 Haegeman과 Guéron(1999)이 제시한 (11b)의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NP에서 기저생성된 'the letter'가 지배자(governor)인 동사로부터 격할당을 받기 위하여 불변화사구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Brinton(2000), Haegeman과 Guéron(1999), 그리고 제3장에서 언급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동사 구문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가 통사론적 논의에 국한돼 있다. 즉, 구동사 구문에서 불변화사는 목적어의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함으로써, 구동사 구문의 통사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의미론적,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설명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론적 차이를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Hurford와 Heasley(1983)는 동일한 단어들이 동일한 순서로 놓일 때 동일한 문장이 되지만, 거기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도 동일한 문장이 아니라며 다음 문장을 예로 들고 있다(p. 17).

(14) Helen rolled up the carpet.
Helen rolled the carpet up. ⌐ different sentences

(15) Sincerity may frighten the boy.
Sincerity may frighten the boy ⌐ the same sentences

Bolinger(1977) 역시 어떠한 형태의 변화도 의미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만약 문장의 의미를 진리치(truth value)가 기준이 되는 명제에 국한시킨다면 "John ate the spinach" 와 "The spinach was eaten by John"은 행위자(agent)와 수동자(patient)가 동일하고,

또한 동일한 세상사(the same event in the real world)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일문이다. 그렇다면, “John sold the house to Mary”와 “Mary bought the house from John”도 하나의 동일한 세상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즉 명제가 같기 때문에 동일문이라고 해야 하며 따라서 하나의 기저구조 즉 동일한 심층구조에서 도출되어져야 한다(p. 4).

또한 Bolinger(1977)는 다음 예문을 보이며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이 초래하는 의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p. 17).

(16) a. She *threw away* the key.
b. She *threw* the key *away*.

(16a)에서 *away*는 부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key를 멀리 던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key가 멀리 던져졌는지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6b)에서는 *away*가 key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형용사적 성격을 지녀서 key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16b)는 key를 멀리 던져서 그 결과 key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Bolinger(1977)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 위에서 아래 문장들의 문법성을 설명하고 있다(p. 17).

(17) a. They hauled in the lines but didn’t get them in.
b. *They hauled the lines in but didn’t get them in.

Bolinger에 따르면, (17a)는 “그들은 줄을 잡아당겼지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문장에 논리적 모순이 없어서 문법적이다. 그러나 (17b)에서는 ‘hauled the lines in’이 이미 줄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뜻하므로, ‘didn’t get them in’은 앞 절과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17b)는 모순적인 문장이므로 비문법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Bolinger(1977)가 든 예문 (16)과 (17)은 불변화사의 이동변형이 문장의 개념적 의미인 명제(proposition)자체를 변화시키는 문장들이다. 즉, (16)의 경우 a가 참이라고 b가 참인 것도 아니고, 거꾸로 b가 참이라고 해서 a가 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래 예문들에서처럼 대부분의 구동사 구문의 경우, 불변화사의 이동은 문장의 개념적 의미까지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18) a. He *turned on* the light.
b. He *turned* the light *on*.

(19) a. She *put on* the hat.
b. She *put* the hat *on*.

위의 (18), (19)에서 a와 b는 불변화사의 순서가 다르지만, Bolinger(1977)의 지적처럼 개념적 의미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불변화사의 위치가 무작위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어순과 관련된 이론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어순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들에 대한 언급은 이미 19세기에서도 있었다. Bean(1983)에 의하면, Weil(1844)은 문장을 화제와 논평으로 분석하였다. 즉 화자는 현존하고(present)있거나 알려진 어떤 것에 의지해서 현존하고 있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실에 도달한다는 것이다(Bean, 1983, p. 18). 즉 Weil은 옛 정보인 화제로 시작해서 새 정보인 논평으로 문장이 구성된다고 한 것이다.

한편, Chafe(1970)에 의하면 옛 정보는 청자의 의식 속에 있다고 화자가 추정하는 지식이고, 새 정보는 화자가 청자의 의식 속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지식이다(p. 30).

Gundel, Hedberg와 Zacharski(1993)는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지시표현의 기지성(givenness)을 다음과 같이 여섯 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p. 275).

(20) The givenness hierarchy

in focus	> activated	> familiar	> uniquely identifiable	> referential	> type identifiable
(it)	that this this N	(that N)	(the N)	indefinite this N	(a N)

(20)에서 보듯이 Gundel 등 3인(1993)은 ‘it’를 가장 잘 알려진 옛 정보로, ‘부정관사 + 명사’를 가장 덜 알려진 정보로 보고 있다.

그러나 Firbas(1974)는 기지성 즉 옛 정보, 새 정보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제보력등급(degree of communicative dynamism: degree of C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어순원리를 설명하고 있다(pp. 23-24). 다음 문장을 보자.

(21) a. An unknown man has asked him the way to the railway station.
b. A girl broke a vase.

위의 (21)에서 ‘an unknown man’이나 ‘a girl’은 알려져 있거나 명확한 어떠한 정보도 지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옛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화제로 될 가능성이 적지만 문장의 출발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지성, 또는 옛 정보, 새 정보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Firbas(1974)는 기지성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제보력등급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Firbas(1974)에 따르면, 제보력등급이란 언어요소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여하는 정도 즉 언어요소가 갖는 정보상의 중요성인데(p. 19), CD가 낮은 요소일수록 문장의 앞쪽에, 높은 요소일수록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21)에서 'an unknown man' 이나 'a girl'이 미지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문두에 위치하는 것은 그것들의 제보력등급 즉 정보상의 중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Firbas(1974)는 (22)와 (23)의 a와 b에서 어순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제보력등급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p. 24).

(22) a. He gave a boy an apple.
b. He gave an apple to a boy.

(23) a. In order to meet his friend, he went to Prague.
b. He went to Prague in order to meet his friend.

한편, 구동사 구문도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구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문장에서 주어는 옛 정보이며 목적어는 새 정보이다. 다시 말하여 문장에서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옛 정보가 되며, 우측으로 갈수록 새 정보가 된다. 그리고 Firbas(1974)의 주장처럼 정보상의 중요성도 문장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구동사 구문에서 직접목적어의 강세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전술했듯이 직접목적어에 강세가 주어지면, 불변화사는 직접목적어 앞에 오게 된다. 강세가 주어진다는 것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에 강세가 주어지는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정보 즉 제보력등급이 높은 정보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목적어가 불변화사보다 뒤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직접목적어에 강세가 오지 않으면, 불변화사는 직접목적어 뒤에 오면서 강세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직접목적어가 주어진 담화의 상황 속에서 청자의 주의를 끄는 초점이 못 되는 정보 즉 제보력등급이 불변화사보다 낮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동사 구문은 직접목적어가 새로운 정보인가 또는 제보력등급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직접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불변화사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대명사는 선행어인 명사가 나오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옛 정보이다. 즉 Gundel 등(1993)이 주장한 기지성 계층(givenness hierarchy)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끝 부분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러한 어순현상은 고대영어 문장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문장을

보기로 하자.

(24) a. ,hie drifon Þa flotan to hira scipum.
S V O
(,they drove the sailors to their ship.)
(Moore & Knott, 1965, p. 31)

b. he hine forbeag.
S O V
(he avoided him.) (Moore & Knott, 1965, p. 51)

(24)에서 보듯이 고대영어 문장은 일반적으로 직접목적어가 명사이면 SVO 유형으로 나타나고 직접목적어가 대명사이면 SOV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도 구동사 구문에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기지성(givenness)과 제보력등급으로 설명할 수 있다.

V. 결론

"최근의 영어교육 연구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가운데 하나는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휘가 가진 다양한 의미와 어휘의 사용능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김연진, 2006, p. 124))." 사실 어휘학습에 대한 관심은 전통문법에서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 후 나타난 여러 교수법들에서 다소 경시되어 왔고, 20세기 말경부터 다시 어휘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Brown, 2007, p. 435).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혼동하기 쉬운 다어동사 어휘에 대한 이해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루어 졌다.

특히 이 연구는 다어어휘단위(multi-word lexical units)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구동사와 전치사적 동사에 초점을 맞춰 이 둘의 특징 및 차이점을 고찰하고 이어서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변형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동사는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불변화사로 이루어진 어휘항목인데 이 때의 불변화사는 부사가 된다. 전치사적 동사도 하나의 동사와 하나의 불변화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때의 불변화사는 전치사가 된다.

구동사와 전치사적 동사는 어느 정도 관용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유 결합어(free combinations)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구동사와 전치사적 동사의 가장 큰 차이는 불변화사의 이동현상과 관련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전치사적 동사와는 달리 구동사에서는 불변화사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불변화사가 목적어 뒤에 나타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동에 관한 논의를 통사론적 관점과 화용론적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사실 통사론적 논의는 이동현상 그 자체만을 설명할 뿐 왜 그러한 이동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화용론적 설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Bolinger(1977), Chafe(1970), Firbas(1974), Gundel, Hedberg와 Zacharski(1993) 등의 논의를 참고하면서 구동사 불변화사의 이동에 관한 화용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사실 구동사의 불변화사 이동은 Firbas(1974)의 제보력등급 개념과 Gundel, Hedberg와 Zacharski(1993)의 기지성(givenness) 개념으로 설명이 가장 잘 되는 것 같다. 따라서 구동사의 목적어는 새 정보일 때 그리고 제보력등급이 높을 때 즉 정보상의 중요성이 클 때 불변화사보다 뒤에 나타난다. 반면에 목적어가 그러한 특징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특히 그러한 특징이 없는 대명사로 나타날 때는 불변화사보다 먼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김낙복. (2007). 연어 중심 어휘 지도가 고등학생의 영어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13*(3), 157-176.

김연진. (2006). 과제 중심 학습에서 어휘 능력의 구성과 평가. *영어어문교육*, *12*(3), 124-145.

Bean, M. C. (1983). *The development of word order patterns in Old English.* London: Croom Helm.

Biber, J.,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Group Ltd.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New York: Longman Group Ltd.

Brinton, L. J. (2000). *The structure of Modern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Y: Pearson Education.

Chafe, W. L.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irbas, J. (1974). Some aspects of the Czechoslovak approach to problems of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F. Danes (Ed.),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pp. 11-37). Prague: Academia.

Greenbaum, S. (1996). *Oxford English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eenbaum, S., & Nelson, G. (2002). *An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2nd ed.). New York: Pearson Education Limited.

Greenbaum, S., & Quirk, R.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and Bath: The Bath Press Ltd.

Gundel, J. K., Hedberg, N., & Zacharski, R.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2), 275-307.
Haegeman, L., & Guéron, J.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Hurford, J., & Heasley, B. (1983). *Semantics: A courseboo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ore, S., & Knott, T. (1965). *The elements of Old English*. Ann Arbor: George Wahr Publishing Co.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Group Limited.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wan, M. (2005). *Practical English usage*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eil, H. (1844). *Order of words in the ancient languages compared with that of the modern languages.* Boston: Ginn and Company.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현완송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262-28
Tel: (064) 746-2627
Fax: (064) 756-3203
Email: wshyun@cheju.ac.kr

Received in January, 2009
Reviewed in February,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ch, 2009